



연중 제7주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당신을 모독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상 기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사흘 뒤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오르는 예수님의 눈빛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육체적·인간적 고통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분명 당신도 모르게 수없이 일그러지곤 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레 일어나는 고통의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겠지만, 그 눈동자에는 한치의 원망이나 억울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몸은 고통으로 몸서리를 쳐도 마음은 평화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나와 반대편에 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흉내라도 내보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불편해도 거북함을 감추지 못하거나 피해 다니고, 나와 성향이나 의견이 달라서 조금만 어긋나거나 부딪혀도 분노하고 뒷담화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입니다.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여라.”는 주님의 말씀을 피해 갈 수도 없고 피해 가셔도 안 될 일이니 나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이분법적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 당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라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보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기도하며 은총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완전한 사람’에 다가서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한 다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익어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그 사람의 내면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상원 베네딕토 신부 | 하대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레위 19,1-2,17-18
화 답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 서	1코린 3,16-23
복 음	마태 5,38-48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 : 성경 교육봉사자들의 집중교육



교구 성경사목부 교육봉사자들은 2월 11일 1학기 개강미사에서 봉사자로 임명 받을 예비 봉사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 시범 발표를 하였다. 1월 9일 교구청 강당에서 선배 봉사자들이 교재연구 및 교안 발표를 통해 첫 파견 본당의 성경 공부에 필요한 내용들을 새 봉사자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선배 봉사자들의 도움은 후배 봉사자들이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봉사자들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겨울방학 집중교육이 교구청에서 있었다. 집중교육은 해마다 일 년에 두 차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이루어진다. 방식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번 겨울방학의 집중교육은 교구 성경 교육의 교재 『여정』에서 오경, 역사서1, 역사서2, 가톨릭서간과 요한 묵시록으로 공부 반 네 그룹이 형성되었다. 봉사자들이 각자 원하는 공부 반에 참여하여 하루 4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었다. 직장인 반 봉사자들의 집중교육은 따로 주말에 두 그룹으로 진행되었다. 공부 진행 방식에는 그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집중교육 기간에 이루어지는 공부의 효과는 매우 크다. 강사를 초빙하여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여도 사흘 연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일정은 각자가 미리 충분히 공부한 것을 봉사자들 앞에서 발표하며 나누는 준비까지 한 후에 참석해야 하므로 집중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에너지 소모는 굉장하다. 개개인의 노력과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많은 노력을 한다. 준비하고 애쓴 만큼 얻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먼 길을 오가며 공부에 임하는 봉사자들이 힘들 법도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얻는 위로와 공부하는 기쁨을 알기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물론 이 공부는 방학 중의 집중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기도와 묵상과 자신의 성찰과 더불어...

3월 첫 주부터 본당 성경 공부 반이 시작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봉사자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수강자들과 만나는 시간이다. 성경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함께 체험하고 그 말씀에 맞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봉사자들의 역할이다. 성경 교육봉사자들의 발걸음은 또다시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이어 갈 봉사자를 모집하고 양성하는 일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하느님을 찾고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려는 이들이 성경 교육봉사자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길에 동참할 분들을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성경사목부 249·7026/010·3567·4810). 공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 2023년 1학기 성경 공부 일정은 7면 참조바랍니다.

깊은 밤을 지나

유시연 레아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 어쩌면 길이 보일지도 모르지요.

남양 성모성지 신부의 한마디에 나는 주저 없이 짐을 꾸렸다. 그는 클라라와 프란치스코 이야기는 묻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그걸 물으면 어쩌나 하고 내심 켜졌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한시름 놓았지만 찝찝했다.

어머니의 전셋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나는 여행을 떠났다. 클라라와 프란치스코를 찾아서 떠난 아시시 클라라 성당에서 수도복을 입은 클라라의 유해를 만났다. 자그마한 키에 매부리코를 한 그녀는 유리관 속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흑갈색 수도복 위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녀의 앞가슴에는 은색 십자가가 긴 줄 끝에 매달려 있었다. 유복한 가정의 귀족 처녀였던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자선과 수도공동체 생활에 매료되어 그의 삶에 동참함으로써 고행의 길로 접어든다. 많은 세속적인 유혹과 욕망을 절제하고 풍요의 삶을 뒤로한 채 가시밭길을 가는 그녀의 인생은 내 시선에서 볼 때 분명히 고난의 길이다. 동굴과 들판에서 노숙을 하며 탁발을 하는 프란치스코와 그를 따르는 청년들은 안락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집을 떠난 후 마음이 허해서 수시로 허기가 졌다. 그러면서도 내 작은 셋방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이 되었다.

바실리카 대성당 지하에서 나는 프란치스코를 드디어 만난다. 지하 대리석 기둥과 기둥 사이 작은 제단 뒤로 흰 꽃에 둘러싸인 그의 관 돌레를 따라 사람들이 경배하거나 원을 따라 천천히 돌고 있거나 줄을 서서 기다렸다. 나는 그저 멀거니 사람들과 촛불과 차가운 돌벽을 응시할 뿐 아무런 감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벗어난 특별한 관계이건 아니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다만 나는 신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동양의 이방인일 뿐이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신부가 사준 연극표 스무 장은 내 생을 가로질러가는 기억 중 몇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가지 따뜻한 기억만으로도 일생을 지탱한다고 하지 않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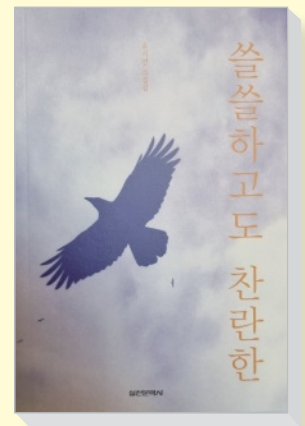
죽은 프란치스코를 찾아 산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하 성당을 들어온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돌벽 안에 갇힌 그를 향해 묻는다. 당신이 원한 건 다 이루었습니까. 클라라가 프란치스코를 찾아와 제자가 되고 봉쇄 수녀원에서 일생을 보낸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은 너무 높고 먼 이야기이다.

“이 나라는 죽은 사람을 경배하는 문화인가 봐.”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지.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고, 심지어는 시묘살이라는 풍습도 있었잖아.”

내 물음에 송이 대꾸를 한다. 단편소설 「깊은 밤을 지나」 중에서

단편소설 「깊은 밤을 지나」는 소설집 『쓸쓸하고도 찬란한』에 실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긴 여정에서 터널과도 같은 깊은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신앙인으로서 주로 성지를 찾아가 위안을 얻곤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경은 프란치스코와 클라라 성녀가 활동했던 이태리의 소도시 아시시를 찾아갔던 경험을 소설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성지에서 성인의 유해를 만나고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오늘을 사는 자신을 다독이고 힘을 얻곤 합니다.



여좌동본당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2,000차 주회



여좌동본당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2월 8일 2,000차 주회를 진행하였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다. 여좌성모성심협의회는 1979년 1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김정근 이나시오 회장과 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2,000차 주회에는 담당 사제인 이슬기 안토니오 신부(여좌동본당 주임)가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축복의 말을 전하였다. 여좌성모성심협의회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웃사랑 실천과 고통 나눔에 동참하는 빈첸시오안으로 봉사하겠다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6

명례본당(1)

명례공소는 삼랑진본당에 속해 있었다. 1996년 수산본당이 신설되자 공소 역할을 접고 본당 관할구역이 되었다. 이후 성지로 조성되었고 2011년 이제민 신부가 전담 사제로 부임했다. 수산본당 주소는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다. 마산교구로선 유일하게 밀양 땅에 있는 본당이다.

하남下南은 조선시대에 붙여진 이름이고 예전엔 지역 전체를 수산守山이라 했다. 수산이 하남보다 오래된 지명이다. 원래는 수산현守山縣으로 현감이 거주하는 큰 고을이었다. 고려 초 밀양에 병합되면서 현은 사라지고 인구도 줄었다. 조선이 되자 밀양 남쪽이란 의미로 하남면下南面이 되었고 현청縣廳이 있던 곳을 수산리라 했다.

명례는 하남읍에 속하며 남쪽으로 낙동강이 흐른다. 밀양에선 제일 남쪽이며 강을 건너면 김해군 이북면二北面 가동佳洞과 바로 연결된다. 현재의 김해시 한림면翰林面 가동리佳洞里다. 이런 이유로 명례엔 예부터 나루터가 있었고 명례 나루라 불렀다.

밀양에서 김해로 가는 길목이었던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늘 모여들었기에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도 적었다. 피난 교우들이 정착하기 좋은 조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곳은 일찍부터 교우들이 숨어들었고 그들에 의해 인근 지역으로 전교가 이루어졌다.

명례에 처음 신자들이 나타난 것은 정해박해(1827년) 이후로 보고 있다. 박해 후폭풍을 피해 명례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김범우 후손에 의해 입교한 인근 교우들로 알려져 있다. 김범우는 밀양군 단장면 법귀리(현 안법리)로 유배 왔다가 일찍 선종하고 아들 김인구와 손자 김동엽이 정착하면서 열심히 전교하여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던 것이다. 영남지방 첫 공소로 알려진 삼랑진 읍실(우곡)공소와 용전, 승진공소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공소다.

정해박해 여파가 심해지자 밀양 교우들은 동쪽 양산지역으로 피신해 전교했고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밀양군 부북면, 무안면, 초동면으로 숨어들었고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에도 전교한 흔적이 있다.

남쪽으로 피신한 교우들은 명례에 터전을 마련했다. 그들은 김해군 이북면 술미와 노루목(한림)에 전교했고 생림면 봉림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편 경북에서 내려온 교우들도 더러 있었는데 그들 역시 정해박해를 피해왔던 것이다. 아무튼 이들이 마산교구 동부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우들이다.

이 지역 교우촌은 병인박해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순교자도 여럿 있다. 아마도 무명 순교자는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정성으로 이곳 명례에 본당이 서게 된다. 1897년 6월이었다. 명례본당 배경에는 강성삼(姜聖參 라우렌시오) 신부가 있다.

강 신부는 다섯 번째 한국인 사제로 충남 홍산(현 부여군 홍산면) 출신이다. 첫 사제 김대건 신부는 1845년, 두 번째 최양업 신부는 1849년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세 번째 사제서품은 1896년 4월 26일 서울 약현성당(현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있었다. 용산 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강도영, 정규하, 강성삼 세분이다. 이들은 뮌헨 주교 주례로 서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강성삼 신부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에서 얻은 풍토병을 극복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품직후 부산본당으로 갔다가 이듬해 휴양을 겸한 명례본당 신부로 왔던 것이다. 강 신부는 명례본당에서 7년간 사목하다 1903년 9월 선종했다. 37살 아까운 나이였다. 무덤은 부산 용호동 성직자 묘지에 있다. 이후 명례본당은 공소로 환원되었고 마산 완월동본당에 속했다가 삼랑진본당에 속하기도 했다. 현재는 수산본당에 속해 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7

명례본당(2)

강성삼 신부는 명례에서 7년간 사목하다 1903년 37살로 선종하고 이후 명례본당은 다시 공소로 환원되었다고 했다. 왜 공소로 환원되었을까? 명례보다는 인근 삼랑진과 진영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명례는 낙동강을 이용하는 수상교통의 중심지였다. 밀양에서 김해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경부선京釜線 철도공사로 상권과 교통이 삼랑진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05년 마산선馬山線 철도가 개통되자 삼랑진은 교통의 요충지로 북적거리게 된다. 당시 삼랑진에는 일본인 상인들과 농장주들이 수백 명 살고 있었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파출소와 헌병대까지 있었다고 한다.

한편 마산선이 개통되자 진영에도 역驛이 생긴다. 조용하던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농산물 집하장도 생겨났다. 이렇게 되자 명례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떠나갔고 신자 수 역시 줄었다. 그러니 다시 본당을 세우려면 삼랑진이나 진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명례 교우들은 본당으로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피난 교우들의 염원이 담긴 본당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밀양지역에도 본당이 있어야 함을 역설하며 줄기차게 신부 영입 운동을 펼쳤다. 그리하여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다. 재건 명례본당이 신설된 것이다.

설립일은 1926년 5월 10일(경향잡지 제20권 참조). 공소로 환원되고 13년 지난 뒤였다. 특히 이날은 진주본당(現 옥봉동성당)과 거제 옥포본당 설립일과 같다. 1926년은 대구교구에서 처음으로 11명의 새 사제가 탄생되는 감격적인 해였다. 그리하여 6개의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했는데 명례가 여기에 들었던 것이다.

당시 모든 공소의 간절한 소원은 신부님을 모시고 본당으로 승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사이동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고 본당 승격 가능성이 있는 공소 회장들은 아예 주교관 근처에서 밤을 지새우며 소식을 기다리곤 하였다.

신설 여섯 본당은 밀양 명례와 경주, 전북의 부안과 장수, 거제 옥포와 진주본당이였다. 공소들이 밀집된 지역에 신설 본당이 선임된 것을 알 수 있다. 명례본당 신부는 권영조(權永兆 마르코) 새 신부였다. 본당 승격이 이루어진 공소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발표에서 빠진 공소는 내년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권영조 신부는 1926년 5월 10일 발령받고 5월 30일 부임했다. 열정으로 선교하면서 낡은 공소건물 대신 새로운 성전 건립을 구상한다. 기성회를 조직해 성당건축을 시작했고 마침내 기와로 된 성당을 지었다. 낙성식은 1928년 8월 30일 있었다. 이후 권 신부는 미래 전망은 명례보다 삼랑진이 낫다는 생각을 갖는다. 갈수록 명례엔 인구가 줄고 삼랑진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1929년이 되자 권 신부는 본당 이전을 결정짓는다. 삼랑진 우곡리(牛谷里)에 대지 1500평을 매입하고 임시성당과 사제관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명례 신자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930년 1월 명례본당은 삼랑진으로 이전되고 권 신부는 삼랑진 초대 신부가 되었다.

권영조 신부는 김천 출신으로 1901년생이다. 명례본당 부임 때 25살 젊은 나이였다. 20대 젊은 나이였기에 결정도 빨랐던 것이다. 아무튼 명례본당은 본당 신부로 두 분을 모셨는데 권 신부님은 20대였고 강 신부님은 30대 초반이었다. 모두 사제생활 첫발을 내딛는 분들이었다.

교구 사목 방문

일시: 2월 21일(화)
본당: 의령/ 대산
일시: 2월 23일(목)
본당: 망경동/ 신안동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2월 21일(화)
본당: 함안/ 칠원
일시: 2월 22일(수)
본당: 사파동/ 명서동
일시: 2월 23일(목)
본당: 거제/ 고현/ 장평/ 남지/ 영산
일시: 2월 24일(금)
본당: 산청/ 함양/ 안의선교

교구/본당

광주가톨릭대학교 기숙생 입사

일시: 2월 20일(월)

광주가톨릭대학교 직수여식

일시: 2월 26일(주일) 11:00

가정사목분과위원회 연수

일시: 2월 25일(토) 14:00
장소: 교구청

교리교사 동계폐정

일시: 2월 25일(토)~26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2월 26일(주일) 10:30
장소: 장평성당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2월 기도모임

일시: 2월 20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지하 경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성모신심묵상회-봉헌을 위한 33일 영성수련회

일시: 2월 20일(월)~3월 27일(월) 6주간
매주 월 14:00~17:00
장소: 신안동성당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3급 자격과정 안내

일정: 매월 2주, 4주 토요일 09:00~16:00
3월 11일(토)~6월 3일(토)
장소: 함안 우리농본부 교육장
신청: 2월 13일(월)~24일(금)
수강료: 30만 원/ 계좌-KEB하나 160-890028-51604 (재)천주교마산교구
문의: 070·8877·3217/ msccps@hanmail.net

기타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22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카톡: 분더에듀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가톨릭평화방송 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일정: 2월 26일(주일)~4월 16일(주일) 50일간
매일 15:00(재방송 23:00)
지도: 김태광 신부/ 주최: 가톨릭평화방송
교재: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바오로 출판사)
문의: 담당자 010·4702·9951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 취업률 76.5% 충북권 최고수준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등록금 전액 감면
-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문의: 043·270·0100~0102

2023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추가모집

추가모집: 3월 31일(금)까지(우편 접수 가능)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 통신(우편)으로 공부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헬라어)

일정: 4월부터 1년간/ 수강료: 3개월 30만 원(주 1회 2시간)
zoom강의: 구약(목-10:00/ 19:30)/ 신약(수-19:30)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위치: 창원시 북면 감계/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2월 20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안에서 즐거워 하십시오(루카 10,21)	정대영 모이세 신부(광주대교구)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스페인 산티아고 9박 10일 4월 11일 & 5월 15일/ 375만원 ■이집트&이스라엘 11박 12일 4월 16일/ 475만원 bra(주)보나투어 02-732-4578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장의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 성지순례(6명 이상 출발) 3월 10일/ 3월 13일 / 3월 28일 제주순례 4월 3일/ 4월 11일/ 4월 28일 제주순례 ■한국 성지순례 3월 17일(금)~19일(주일) 수원교구 3일(부산 출발) 4월 14일(금)~16일(주일) 전주·광주 3일(부산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에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	--	---	--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2차 헌금 실시

지난 2월 6일(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엄청난 피해 규모로 구조와 복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원을 위한 2차 헌금을 **2월 26일(사순 제1주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본당에서는 지진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자선으로 뜻깊은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천주 교인이오?”

하느님의 구원을 굳게 믿으며 목숨을 바치신 김대건 신부님 25년의 생애!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한 이번 연극을 통하여 순교로 목숨 바쳐 지켜낸 신앙의 증거와 신부님의 영성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서동본당은 3월 10일 성산아트홀에서 ‘아! 김대건 신부님’ 연극 공연을 올리게 되었다. 거창본당의 ‘라오브라 성극단’의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공연작으로, 문화 선교 차원에서 예비자와 쉬는교우, 본당 신자들에게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죽음의 거룩한 신앙 증거를 통한 영성을 고취하고자 초대하였다.



2023-1학기 교구 성경공부 일정

마산지구			
본당	개강일	과정	과목
교구청	3월 14일(화) 10:00	일반	마르코 복음서
구암동	3월 6일(월) 19:30	일반	마태오 복음서
산호동	3월 9일(목) 20:15	일반	루카 복음서
상남동	3월 8일(수) 14:00	지혜	마르코 복음서
양덕동	3월 6일(월) 19:30	일반	마태오 복음서
영산	3월 10일(금) 10:40	은빛	마태오 복음서
월영	3월 7일(화) 10:00	일반	오경
	3월 8일(수) 20:10	일반	가톨릭서간·요한묵시록
월남동	3월 9일(목) 20:00	일반	마태오 복음서
의령	3월 8일(수) 10:30	지혜	역사서2
함안	3월 10일(금) 10:40	일반	가톨릭서간·요한묵시록
호계	3월 7일(화) 10:30	일반	오경
	3월 10일(금) 19:30	일반	오경
창원지구			
가음동	3월 4일(토) 10:00	지혜	신약2
	3월 9일(목) 10:00	일반	오경1
대방동	3월 7일(화) 10:00	일반	역사서2
덕산동	3월 6일(월) 19:30	일반	오경1
	3월 7일(화) 10:00	일반	마태오 복음서
	3월 9일(목) 10:50	지혜	역사서3
명서동	3월 8일(수) 20:10	일반	마태오 복음서
	3월 9일(목) 10:40	지혜	예언서1
반송	3월 9일(목) 10:4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사파동	3월 6일(월) 20:00	일반	역사서1
	3월 10일(금) 10:40	일반	바오로서간
수산	3월 10일(금) 10:40	은빛	탈출기
용잠	3월 8일(수) 19:00	일반	역사서1
중앙동	3월 10일(금) 10:40	은빛	욥기와 코헬렛

진주지구			
본당	개강일	과정	과목
가좌동	3월 8일(수) 19:30	일반	역사서1
거창	3월 8일(수) 19:30	일반	역사서2
남해	3월 8일(수) 10:30	일반	오경1
문산	3월 6일(월) 19:30	일반	바오로서간
	3월 10일(금) 10:40	일반	오경2
사천	3월 10일(금) 19:30	일반	오경2
	3월 8일(수) 10:40	지혜	예언서
산청	3월 10일(금) 19:30	일반	역사서1
	3월 10일(금) 10:30	첫걸음	오경과 역사서
삼천포	3월 10일(금) 19:30	첫걸음	오경과 역사서
	3월 8일(수) 19:30	일반	역사서1
상평동	3월 8일(수) 19:30	일반	역사서1
신안동	3월 7일(화) 10:00	일반	예언서
옥봉동	3월 8일(수) 19:30	일반	가톨릭서간·요한묵시록
평거동	3월 8일(수) 10:4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3월 9일(목) 20:10	일반	역사서2
함양	3월 6일(월) 19:30	일반	역사서2
거제지구·복지시설			
거제	3월 10일(금) 10:3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고현	3월 10일(금) 10:40	일반	오경1
대건	3월 9일(목) 10:00	일반	오경2
북신동	3월 9일(목) 10:00	일반	오경1
작은예수회	3월 9일(목) 10:00	은빛	욥기와 코헬렛
지세포	3월 8일(수) 19:30	일반	역사서1
태평동	3월 8일(수) 19:30	일반	예언서
	3월 9일(목) 10:30	은빛	욥기와 코헬렛
하청	3월 10일(금) 10:40	일반	오경2

★ 문의 : 성경사목부 055·249·7025~6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래도 나갈 거야!!

윤종두 요한 신부/ 교구 이주사목센터장

인종차별(人種差別) 또는 인종주의(人種主義)는 인종 집단에 따라 행동 특성의 차이나 우열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뜻한다. 흔히 특정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서구세계에서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믿을 수 있는 진리처럼 여겨졌다. 백인과 흑인의 차이를 둔 미국의 '짐크로우'법은 1965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법은 1995년에서야 비로소 소멸하였다. 인종주의는 일본에서도 신봉되었는데, 1903년 오사카 내국 권업박람회 때 조선인 등 7개 민족을 전시했고, 1907년 도쿄 권업박람회에서도 조선인 두 명을 전시하고, 2차 대전 당시 발행된 '야마토 민족을 중핵으로 하는 세계정책의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인을 다른 동양 인종보다 우월한 인종이라고 드러내고 있다. 과학적 인종주의에 근거한 이런 차별은 2차 대전 이후 과학적 연구 절차를 거쳐 기존의 인종주의적 주장이 모두 부정되었고, 이 단어의 의미는 과학적으로는 이미 소멸한 상태이다. 즉, **과학적으로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정서적으로도 해소된 것일까?

10여 년 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어느 수업에서의 일이다. 신학생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로 이루어진 한 수업 시간에 '흑인'을 보면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나눔을 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거의 모두가 실제로 흑인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의 뇌는 자동적으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더럽다!" "무섭다!"를 넘어서 "두렵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겁다'는 단어 하나에 모두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존재임을 머릿속으로 다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몸이 하는 반응은 여전히 반대편에 서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스스로 놀라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결혼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한 이유가 본명을 사용할 때 자녀들이나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한 1차적 방법이라 하니, 우리 사회의 정서적 차별의 정도를 가늠해 본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인데, 차별을 피하기 위해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정서적 인종주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현주소에 마음이 아플 따름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민족에 대한 혐오가 각 나라에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여러 형태로 대두되었지 않았던가?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이주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역사적 사실이든, 왜곡된 사실이든 대한민국의 정서 속에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을 지니고 배타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시선과는 별개로, 더 나은 삶을 향해 약속된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힘겹지만 고향을 떠나 편견과 차별을 어깨에 짊어지고, 희생과 사랑으로 그 무거움을 감내하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